



식품업계 해외서 호실적 '3조클럽' 11곳 L1



Life

K뷰티 차별화 전략으로 해외시장 공략 L2



# “AI시대, 끝없이 질문 던지고 ‘사유’하는 인재 키워야”



새벽을 여는 사람들

## 한양사이버대 교육혁신센터장 이지은 교수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탐구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지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혁신센터장(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교수)은 기술의 노예가 아닌, 기술을 현명하게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대신’하도록 하는 게 아닌, AI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AI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계도 AI를 활용한 새바람이 불고 있다. AI를 접목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학습자의 학습성취 수준 및 심리까지 분석해 개별 지도를 통해 학습 효율을 높인다. 그럼에도 이 교수는 AI가 인간을 추월한다는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 예측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AI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학습한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그렇기에 AI 시대 인재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 의지를 갖춰야 한다”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AI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더 멀리 바라보고, AI라는 똑똑한 종을 잘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 AI가 학생과 소통… 강의, 다국어로 변환 대학 현장에는 이미 AI가 곳곳에 자리 잡았다. 이지은 교수가 강단에서 한양사이버대도 ‘AI 선도대학’을 표방하며 콘텐츠 개발과 학습관리시스템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이지은 교수는 “제 강의에서도 챗 GPT를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연동해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도중 궁금한 사항을 챗 GPT에 질문해 답변받도록 하고 있는데, 학습자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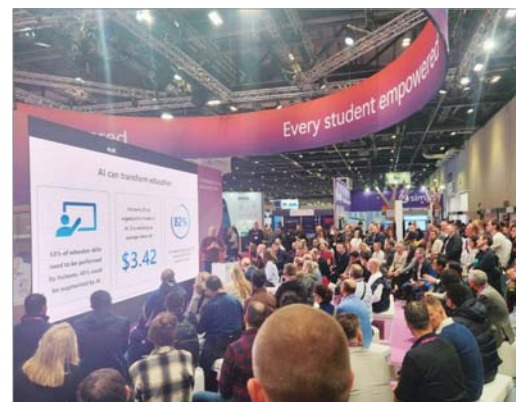
한국어로 만든 이러닝 콘텐츠에는 AI 자막과 교수자 음성변환 기능을 적용해 다국어로 변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는 페루 국립공과대학교(UNI) 시스템산업공학과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PPT, 자막, 음성 모두 스페인어로 지원된다. 현재는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식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수는 “AI를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동첨삭 서비스 등을 통해 학생에게 개별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행정업무도 자동화함으로써 교수는 더 많은 시간을 학생 지도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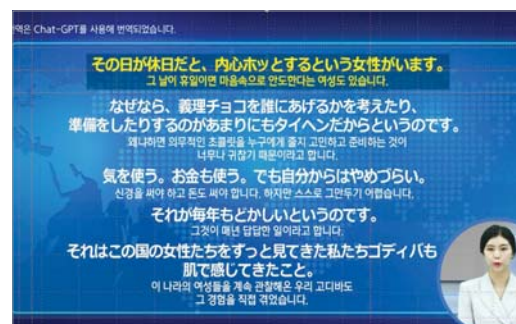
이 교수는 “올 초 영국에서 열린 글로벌 에듀테크 전시회 BETT쇼에 방문해 세계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고등교육에 혁신의 바람



이지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혁신센터장(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교수)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에서 열린 글로벌 에듀테크 전시회 BETT Show의 AI 세션 부스.



휴먼 시를 활용한 강의 콘텐츠 개발 사례. /한양사이버대

### AI 활용해 교육 콘텐츠 제작·학습관리 챗GPT로 질의응답, 강의 다국어 변환도 기술 도움받아 학생지도·연구에 더 집중

### AI 의존도 낮추고, 지식 도구로 사용해야 비판적 사고·창의성, 미래인재 역량으로

은 이미 전 세계에 불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 과제 ‘챗 GPT’ 대항 여부, ‘챗 GPT’로 검수 교육 현장에 AI를 접목하며 발생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안이나 종합적 사고력 약화 등 역기능의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챗GPT의 ‘활용’을 넘어 ‘대필’ 수준으로 사용하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토론·창작 과제에도 챗GP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교수는 “이번 학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토론과 과제를 부여했는데,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가 챗 GPT를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를 이용해 다른 오랑캐를 통제함) 전략에 따라, GP T 제로와 같은 챗GPT 검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교수는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AI는 지식을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일 뿐,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샐러던트’ 많은 사이버대학서 ‘더 쉽게 더 공감하며’… ‘베스트티처’ 선정

이지은 교수가 ‘경영학’을 넘어 ‘AI’ 접목 융복합학과인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된 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발을 들여놓은 게 계기가 됐다.

이 교수는 “학부 지도교수님께서 16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시면서 선배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 소속으로 4년여 일했다”라며 “당시 정보통신 관련 학식을 쌓고자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면서 이후 대학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뿐 아니라 신세계 체인사업본부, 스타트업 등에서 활동했던 사회 이력은 교수로서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사이버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샐러던트’이기 때문이다.

‘AI’라는 새로운 학문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학습자 중심 교육 활동을 펼쳐 온 그는,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쓴 학내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베스트티처 상도 여러 번 수상했다.

### ◆ “창의적인 해결책 찾는 미래 인재 필요”

이 교수는 AI 시대에 앞으로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요구된다”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이유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AI 덕분에 많아진 내 시간과 자원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이지요. 질문을 통해 호기심의 그물을 던지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과 사회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삶입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이지은 교수는 한양사이버대에서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학부와 경영전문대학원 IT경영 트랙에서 강의한다. 경영과 정보, AI 등을 배우는 융복합 전공이다.

이 교수는 “전통적인 경영정보시스템(MIS)에 AI,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경영 관련 지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창의적 사고와 집단지성,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생 자신의 전공 학과가 아니더라도, ‘나노미션디그리’로 운영되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나노미션디그리는 복수전공·부전공이수는 부담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 구성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 이수 시 인증서가 발급되는 제도다.

특히,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기존 특수대학원의 일반·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및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박사과정 개원을 승인받았다. 이에 기존 경영대학원은 경영전문대학원으로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 교수는 “특수대학원 형태로 존재하던 경영대학원의 커리큘럼을 강화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전환, MBA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라며 “‘IT경영’ 트랙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IT를 활용해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IT 분야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교육 목표”라고 말했다.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SG, 앤더슨과 120만 달러에 재계약...화이트와 원투펀치 구성 /사진 뉴시스  
▲홍명보, 전세기로 요르단 이동...팔레스타인전 준비 박차

▲“맨시티, 홀란과 주급 8억8000만원에 재계약 협상” 풋매체  
▲“이기흥 회장 해명은 거짓”...체육회 관계자 “부패하고 무너지고 있다”



▲토트넘 손흥민, 이강인과 한술밥 먹나...PSG 이적설 /사진 뉴시스  
▲“무릎 부상 장기화” 조규성 재활 공개...“곧 돌아올 것”